林業投資가 山村의 所得과 雇傭에 미치는 效果

——全北地方 林業投資를 中心으로——

李 廣 遠(研究員)

Ⅰ. 序 論
Ⅱ. 分析에 使用된 理論的 背景
Ⅲ. 林業投資의 性格
Ⅳ. 所得·雇傭效果
1. 林業投資의 推移
2. 靜態下의 所得 雇傭效果
3. 動態下의 所得 雇傭效果
Ⅴ. 結 論

Ⅰ. 序 論

근간 國土保存 사업의 하나로 推進되고 있는 治山綠化 事業은 林業生產이 國民總生產額의 2%에 불과하고 그의 成長率이 年 平均 6% 정도인 林業으로서는 林業發展의 커다란 계기가 아닐 수 없다. 종전 造林爲主의 山林政策도 事後管理와 撫育 등 더욱 積極的이고 效率的인 生產綠化政策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근간에는 自然保護라는 관점에서도 山林에 대한 國民的 認識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한편 國際貿易의 계속적인 伸張과 經濟構造 변동으로 木材의 性格도 消費財에서 生產財로의 移行에 따라 急激한 需要增加를 가져왔으며 이에 對應할 수 있는山林生產力 增大를 위한 林業投資가 要求되고 있다. 그러나 零細한 山林生產 構造와 山林投資에 대한 一般人의 몇가지 否定的인 要因으로 林業投資는 자연히 私個人의 有效需要를 흡수하지 못하고 政府가 주된 投資源이 되고있으나, 그것마저도 다른 事業에 비하여 投資率이 현저히 낮은 1.6%에 不過한 실정이다.

어떻든 이러한 林業投資일지라도 相對的으로 貧困한 山村社會의 所得可能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占有하고 있다. 그간 우리 나라에 投資된 林業投資(個人財源을 除外한)는 1965年 991,260千원, 70年에는 5,424,260千원 그리고 75年에는 10,750,450 千원으로 1965年부터 1977年까지 12年동안 560억6千만원 이상의 막대한 豫算이 집행되었으며, 그의 增加率도 1965年에 비하여 10년동안 10.8倍나 증가하고 있어 山林의 生產效果뿐 아니라 地元 山村에 미치는 投資效果는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의 林業投資에 의한 山村民의 實質的인 所得源은 賃金勞動 所得에 불과하여 全體 家計所得 가운데 차지하는 賃金所得은 11%정도 이다[1].

어떻든 과거 수년간의 林業投資는 經濟的 社會的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山村社會에 새로운 雇傭機會를 增大시켜 山村의 所得構造와 生活環境 等에 커다란 影響因子가 되었다. 그러나 問題는 山村民의 林業投資에 대한 유일한 所得源이 賃金所得임에도 불구하고 林業投資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官行林業賃金이 農村賃料金의 61.3%에 불과한 低賃金으로 山村民의 勞動生產性은 극히 낮은 실정이며, 그에 따른 所得效果는 實質所得의 遞減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더욱 林業勞動給源이 전체 人口의 41%나 되는 季節性潛在失業人口에서 조달되고 있고[2] 특히 農業과 相互補完的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全業人口를 낳지못한 半農的性格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雇傭效果를 가져왔을까 의

심치 않을 수 없다. 특히 林業投資의 궁극적 목적이국민의 經濟的 福利를 증진하는 것이며 좁게는 地元民의 福祉增進에 있다는 면[3]에서 볼 때 看過할 수 없는 문제이며, 林業生產과 山林保護의 最善策이 山村民의 所得向上에 있다고 할 때 이들 山村의 林業投資에 의한 所得 雇傭効果의 提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本稿는 근간 10個年간 投資해 온 林業投資에 의한 貨幣賃金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所得雇傭効果를 가지고 왔는가를 檢討하기 위하여 林業投資의 大宗을 이루어 왔던 官行 林業投資와 私有林經營體의 林業投資를[4] 대상으로 그 實態를 分析하였다.

Ⅱ. 分析에 使用된 理論的 背景

林業投資에 의한 地元 山村民의 受惠는 크게는 林業生產에 의한 生產効果와 林分價値의 增大에 따른 蓄積効果 더 나아가 山林의 公益的機能을 포함한 諸効果를 위시하여 雇傭機會의 擴大로 인한 勞動所得을 포함한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山村民의 林業投資 受惠는 林產物의 獲得 利用에 따른 林產物收入과 賃勞動收入으로 限定되어 있다. 그러나 林產物收入은 收入構造가 不特定하고 可視的計測이 어려울뿐 아니라 現物收入이 대부분이므로 山村에서 林業投資에 의한 生產効果를 가져온 부분은 投資의 대부분이 賃金으로 山村社會에 잔류한 勞動賃金이다. 따라서 山村社會의 生產構造에 직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賃勞動 所得으로 山村 所得·雇傭効果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一定한 所得의 增加는 需要를 創出하여 生產을 增加시키고 그만큼 雇傭을 增大시킨다. 이러한 有効需要에 대한 生產 인플레 雇傭効果에 관한 理論은 Keynes의 一般理論[5]에서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이 Keynes의 eo, ep, ew理論 等은 諸 角度에서 現實分析에의 適用에 많은 反論을 提起하고 있고 또한 贊反에 대한 論議도 구구하다. 하이에크는 Keynes 經濟學의 첫 스타트의 過誤는 雇傭은 사람들의 集合的需要의 직접적인 關數라고 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總需要의 增減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雇傭이 增減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雇傭을 늘이기 위해서 總需要를 늘이면 된다는 방식으로 財政資金을 撒布하면 된다는 것과 같은것이다. 本稿는 이와같은 批判의 現實經濟에의 적용에서 우리 나라 山村과 같은 勞動市場狀況에서의 적용이 과연 적당한지에 대한 論議如否에 制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山村의 經濟實態가 不完全雇傭狀態이고 山村振興을 위해 더 많은 公共投資가 절실히 要請되고 있는 실정에서 Keynes 理論에의 接近을 시도해 보았다. 단 本稿에서는 Keynes의 一般理論가운데 有効需要를 總貨幣賃金額과 같은것으로 推定하고 *eo*, *ew*, *en*理論 대신 總貨幣賃金 (w)과 物價(p) 雇傭(n)과의 關係에서 $\eta w'$, ηp, ηn의 理論으로 展開하였다. 곧 실제로 山村에 투여되는 投資의 大部分이 賃金으로 支拂되기 때문에 有効需要의 增加率과 總貨幣賃金額의 增加率과가 거의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有効需要理論에 대한 現實適應에서 總貨幣賃金額을 가지고 그의 構成式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賃金과 實質賃金을 w, w' 物價를 p라고 하면

$$w = w' \cdot p$$

따라서 總貨幣賃金 $W = w \cdot n = w' \cdot p \cdot n$

$$dW = p \cdot n \cdot dw' + w' \cdot n \cdot dp + w' \cdot p \cdot dn$$

$$\frac{ddw'}{w'} \Big/ \frac{dW}{W} \Big/ + \frac{dp}{p} \Big/ \frac{dW}{W} + \frac{dn}{n} \Big/ \frac{dW}{W} = 1$$

의 關係式이 成立한다.

여기서 $\frac{dw'}{w'} \Big/ \frac{dW}{W} = \eta w'$

$\frac{dp}{p} \Big/ \frac{dW}{W} = \eta p$

$\frac{dn}{n} \Big/ \frac{dW}{W} = \eta n$ 이라면

$$\eta w' + np + \eta n = 1$$

즉 總貨幣賃金의 增加는 그 어느 정도가 實質賃金과 物價, 雇傭의 增加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本 硏究의 所得効果 雇傭効果를 則定하는 構造式이다. 이式에서 만일 貨幣賃金總額은 증가했는데 物價에의 영향이 전혀 없는것이라면 증가한 賃金支拂總額은 實質賃金水準과 雇傭水準의 上昇으로 나타난다.

즉 $\eta w'+\eta n=1$의 關係이다. 이러한 狀態는 대단히 理想的이지만 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勞動의 平均收益이 增加하지않으면 않된다. 따라서 長期的으로 보면 이때 勞動의 平均收益의 증가 또는 감소가 그대로 實質賃金의 증가 또는 감소와 一致될것이라는 점이다. 즉 兩者간에는 상당히 높은 相關關係가 있으리라는게 당연히 상상된다. 만일 이러한 관계가 成立된다면 이 式은 貨幣賃金支拂總額(總貨幣賃金所得)의 實質賃金, 인플레 및 雇傭等의 各效果를 나타내는 式이 된다. 實際分析에서 勞動의 平均收益(生產指數/有業人口指數) $0/n$와 實質賃金 w'와의 사이에는 長期的으로 상당히 高度의 相關이 認定되어 長期的으로는 $dw'/w'=K\cdot d(\frac{0}{n})\ /\ \frac{0}{n}$($K$: 比例常數)라는 관계가 成立한다고 인정되었다. 곧 이式을 賃金支拂總額의 所得 인플레雇傭效果를 表示하는 式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다.

여기서 林業投資에 의한 總賃金額의 雇傭彈力性 ηn은 다음과 같은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1) $\eta n>1$ 때는 總賃金增加率보다 雇傭增加率이 더 많다.

2) $1>\eta n>0$ 때는 總賃金增加率이 雇傭增加率보다 크다.

3) $\eta n<-1$ 때는 總賃金增加率보다 雇傭減少率이 더 크다.

4) $-1<\eta n<0$ 때는 總賃金은 減少했는데 雇傭이 增加 또는 總賃金은 增加했는데 雇傭이 減少될 경우이다.

5) $\eta n=0$는 總賃金은 減少 또는 增加했는데 雇傭이 不變일 때와 雇傭이 增加 또는 減少했는데 賃金이 不變일 때이다.

또한 $\eta w'$, ηp, ηn의 크기에 따라 dw', dp, dw', dn의 사이에는 實質賃金과 收益이 여러가지 형태로 變化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1) $dw>0,\ dp>0,\ dw'>0,\ dn>0$

2) $dw>0,\ dp>0,\ dw'<0,\ dn>0$

3) $dw>0,\ dp>0,\ dw'>0\ dn=0$

4) $dw<0,\ dp>0,\ dw'<0,\ dn>0$

5) $dw>0,\ dp>0,\ dw'<0,\ dn<0$

이다. 1)의 경우는 總賃金額의 增加는 物價의 上昇과 實質賃金의 上昇, 雇傭의 上昇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eta n'>0$, $\eta p>0$으로 $\eta w'+\eta n+\eta p=1$인 경우이다. 그러나 여기서 實質賃金 $\eta w'$가 物價上昇 ηp보다 클 경우는 實質的인 賃金은 上昇한 것으로 雇傭效果는 正의 狀態로 나타난다. 또한 $\eta w'=\eta p$의 關係는 實質賃金은 變動하지 않은것으로 雇傭效果도 不變이지만 $\eta w'<\eta p$의 경우는 實質賃金은 低下하여 雇傭效果도 低落한다. 바꾸어서 $\eta w'>\eta n$인 경우는 收益遞增으로 所得效果는 높아지고 $\eta w'=\eta n$의 경우는 收益不變으로, $\eta w'<\eta n$은 收益遞減으로 나타나 所得效果는 떨어진다. 이와같은 관계를 정리하면

$dw>0,\ dp>0,\ dw'>0,\ dn>0$, 곧 $\eta w'>0$, $\eta p>0$ ($\eta w'+\eta n+\eta p=1$)의 경우

① $\eta n'>\eta p$: 實質賃金 上昇

② $\eta w'=\eta p$: 實質賃金 不變

③ $\eta w'<\eta p$: 實質賃金 下落

④ $\eta w'>\eta n$: 收益遞增

⑤ $\eta w'=\eta n$: 收益 不變

⑥ $\eta w'<\eta n$: 收益 遞減

같은 方法으로

2) $dw>0,\ dp>0,\ dw'>0,\ dn=0$, 즉 $\eta n=0$, $\eta w+\eta p=1$인 경우

① $\eta w'>\eta p$: 實質賃金上昇, 收益遞增

② $\eta w'=\eta p$: 實質賃金不變, 收益遞增

③ $\eta w'<\eta p$: 實質賃金下落, 收益遞增

3) $dw>0,\ dp>0,\ dw'<0,\ dn>0$ 경우 즉 $\eta w'<0$, $\eta n+\eta p>1$: 實質賃金下落, 收益遞減

4) $dw>0,\ dp>0,\ dw'<0,\ dn<0$ 경우 즉 $\eta p>1$ $\eta w'+\eta n<0$의 경우

① $\eta w'>\eta n$: 實質賃金下落, 收益遞增

② $\eta w'=\eta n$: 實質賃金下落, 收益不變

③ $\eta w'<\eta n$: 實質賃金 收益遞減

5) $dw>0,\ dp>0,\ dw'<0,\ dn>0$ 경우 즉 $\eta w'>1$, $\eta n+\eta p<0$의 경우는 實質賃金低下와 收益遞減으로 나

타난다.

Ⅲ. 林業投資의 性格

Keynes는 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 ,經濟活動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投資決意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投資量을 결정하는 投資誘因은 豫定投資로 부터 기대되는 資本利潤率 즉 資本의 限界効率과 豫定投資를 위해서 조달된 資金價格 즉 利子率의 크기라고 하였다. 그런데 投資가 增加하면 競爭이 激化하여 資本의 限界効率은 점차 低下하지만 利子率에는 下限이 있어서 元本 回收에 不安을 느껴 安全한 貨幣形態로 貯蓄하게 된다. 즉 投資로 부터 기대되는 資本의 限界効率이 利子率보다 떨어지면 投資를 단념한다.

林業投資 역시 하나의 貨幣資本으로서 一定期間 資本의 限界効率이 높은 投資効果를 기대하고 投資를 하겠지만 資本 回轉期間이 長期이기때문에 景氣變動의 不安要素로 投資는 壓迫되어 위축되거나 短期的인 投資効率을 얻기위한 部門에 집중되기 쉽다. 이러한 林業投資의 性格으로 農山村의 有効需要나 企業資本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投資를 한다하여도 일종의 貯蓄性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은 林業投資의 性格으로 그간 政府가 주된 投資源이 되는 직접적인 動機가 되었고 일부 木材品 加工利用企業에서 伐採 代身 補償造林 形式으로 投資가 행해왔다.

投資는 資本 Stock의 增大에 의해서 生產能力을 擴大하는 것인만큼 所得効果와 生產力効果를 발생시키는 二重的性格을 가지고 있다. 經濟가 均衡狀態를 유지하면서 成長하려면 生產能力의 增加率과 有効需要, 즉 國民所得의 增加率이 同一速度로 진행되어야 하는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投資에 의해서 創出된 生產能力을 완전히 가동시키기 위하여 그것과 同一한 所得이 創出된 새로운 所得은 投資에 의해 創出된 所得의 增加分을 吸收해야 된다는 것이다[6].

投資의 二重効果에 있어 所得을 發生시키는것은 投資의 增加分이며 生產能力을 增加시키는 것은 投資의 絕對額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投資가 前期와 同一水準에 머물게 되면 投資의 增加가 없으므로 有効需要는 발생하지 않는데 生產能力은 產出効果에 의해서 增大하게 된다.

林業投資와 같은 實物投資에 있어서도 林分價値의 增大와 蓄積의 增加로 인한 生產 所得効果를 얻을 수 있으며 生產을 위한 投資, 즉 生產價에서 所得을 除外한 部分—地代와 生產設備投資, 雇傭投資—이 林業投資의 大部分으로 그중 賃金投資로서의 雇傭投資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이 林業投資의 特異性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資本回轉期間이 40~60年이라는長期的인 時間을 필요로 하고 各種 災害 等 위험을 부담하는 關係로 連年 生產効果에 따르는 伐採分을 利子로 代替하고 있어 山林이 法正林狀態에 이르기까지는 그의 生產効果는 所得効果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林業經營의 特質의 하나로서 保續生產形態에 이르는 期間동안 계속 投資만을 要求한다.

Ⅳ. 所得 雇傭効果

1. 林業投資의 推移

表 1은 全北地方 林業投資量을 計算한것으로 總勞動賃金은 1968年부터 계속 增加를 보이고 있는데 1965年부터 1976年까지 12개년간 약 55억5천만원이 農山村의 林業投資에 의한 勞動所得으로 山村民에 투여되었다. 그에 따라 雇傭量도 漸增하여 1976년에는 68萬名에 이르러 雇傭은 240여%의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

다음 表 2는 全北地方 主要 私有林經營體 5個를 選定하여 資料利用이 가능한 '70~'76年의 資料를 會計原簿에서 調査한 것으로 表 1과 다른점은 造林이 완료된 山林經營體이고 表 2는 造林投資에 의한 造林 殖樹勞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들 私有林은 대부분이 用材林 生產體이며 일부 森林을 버섯이나 種實採取 等비교적 營利的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總經營面積은 564ha였다.

表 1 全北地方 官行林業投資 推移

年 度	造林面積 (ha)	砂 防		砂 防 造 林		伐 採 (m³)	總賃金額☆ (원)	農林業從事者數 (名)
		面積(ha)	人員(名)	面積(ha)	人員(名)			
1965	23,173	2,700	312,936			48,340	259,339,790	284,152
1966	16,399.2	799	413,366			42,747	263,266,410	319,272
1967	48,778.3	900	413,454			42,867	344,962,668	343,303
1968	13,157.4	469	250,774	1,021	37,509	27,932	189,265,866	373,156
1969	13,960.1	750	222,750	2,871	129,771	26,094	222,794,169	396,975
1970	11,841	660	178,134	1,610	79,707	26,261	281,307,099	442,425
1971	12,523.9	613	85,398	613	85,398	15,253	406,778,821	471,562
1972	13,197.1	574	80,949	574	89,049	12,726	429,433,505	543,263
1973	11,631	788	193,888	340	21,217	16,834	493,295,218	685,765
1974	17,749	1,345	344,924			36,832	722,402,635	702,410
1975	19,013	900	246,430	160	2,849	45,809	775,092,610	661,275
1976	19,215	513.7	420,158			33,201	1,172,583,214	683,536

資料：全北統計年報

☆總賃金額計算은 造林 ha 40名, 下刈는 造林後 3年間 6名, 伐採는 m³당 2名으로 雇傭量을 求하고 當該年의 賃金額을 乘한 것임.

表 2 私有林經營體의 林業賃金支拂額 및 雇傭量

年 度	總賃金支拂額	雇傭人員	1人當所得
1970	6,258,600	370	16,915
1971	8,123,700	381	21,378
1972	8,931,000	400	22,327
1973	11,766,200	400	29,415
1974	15,339,800	432	35,674
1975	18,944,800	450	42,099
1976	24,314,700	450	54,033

資料：'77.10. 全北地方主要 5個私有林體調査

2. 靜態下에서 所得과 雇傭에 미치는 영향

이상 2개의 資料를 所得 雇傭効果 計測 理論式에 代入하여 各年의 $\eta w'$, ηp, ηn을 求한 것이 表 3과 4이다.

여기서 66年, 68年 75年은 $\eta w'+\eta p+\eta n$의 값이 1이 아닌 다른 結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物價變動이 不規則한 結果로 推定되며 ηn과 $\eta w'$의 사이에는 상당히 彈力的인 관계가 있는것을 알 수 있다.

곧 雇傭의 增加는 實質所得의 下落을 불러 일으키는

表 3

年度	總賃金指數 W	dw	dw/w	生計費指數 p	dp	dp/p	實質賃金指數	dw'	dw'/w'	雇傭量指數 n	dn	dn/n	ηp	$\eta w'$	ηn
65	100			100			100			100					
66	101.5	1.5	0.015	112.2	12.2	0.122	80.6	−19.4	−0.194	112.3	12.3	0.123	8.133	−12.993	8.2
67	133.0	31.5	0.310	125.1	12.9	0.115	88.0	7.4	0.092	120.8	8.5	0.076	0.371	0.297	0.245
68	72.9	−50.1	−0.377	152.1	27.0	0.216	36.5	−51.4	−0.585	131.3	10.5	0.087	−0.573	1.552	−0.231
69	85.9	13.0	0.178	167.6	15.5	0.102	36.7	0.2	0.005	139.7	8.4	0.064	0.573	0.028	0.360
70	108.5	22.6	0.263	193.1	25.5	0.152	36.1	−0.6	−0.016	155.7	16.0	0.115	0.578	−0.061	0.437
71	156.9	48.4	0.446	220.8	27.7	0.143	42.8	8.7	0.242	165.9	10.2	0.066	0.321	0.540	0.148
72	165.6	8.7	0.055	251.9	31.1	0.141	34.4	−8.4	−0.196	191.2	26.3	0.159	2.564	−3.564	2.891
73	190.2	24.6	0.149	276.3	24.4	0.097	28.5	−5.9	−0.172	241.3	50.1	0.262	0.651	−1.154	1.758
74	278.6	88.4	0.465	371.6	95.3	0.345	30.3	1.8	0.063	247.2	5.9	0.024	0.742	0.135	0.052
75	298.9	20.3	0.073	459.3	87.7	0.236	28.0	−2.3	−0.076	232.7	−14.5	−0.059	3.234	−1.041	−0.808
76	452.1	153.2	0.339	567.5	108.2	0.191	33.1	5.1	0.154	240.5	7.8	0.032	0.563	0.454	0.094

것으로 林業生產力이 낮고 林業勞動이 資本과의 對抗을 이루지 못하고 값싸게 供給된다는 것을 말하며 勞動需要에 대한 勞動賃金의 硬直性을 말해 준다. 그리고 林業投資에 의해 山村民이 상당한 所得과 雇傭增大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効果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繼續的인 인프레로 인한 物價上昇이 主原因으로

表 4

年度	總賃金指數W	dw	dw/w	生計費指數p	dp	dp/p	賃金指數w'	dw'	dw'/w	雇傭指數n	dn	dn/n	ηp	$\eta w'$	ηn
1970	100			100			100			100					
1971	129.8	29.8	0.298	114.3	14.3	0.143	110.6	10.6	0.106	102.7	2.7	0.027	0.479	0.355	0.091
1972	142.7	12.9	0.099	130.5	16.2	0.142	101.2	−9.4	−0.085	108.1	5.4	0.052	1.434	−0.859	0.525
1973	188.0	45.3	0.317	143.1	12.6	0.097	121.5	20.3	0.201	108.1	0	0	0.306	0.634	0
1974	245.1	57.1	0.304	192.4	49.3	0.345	109.6	−11.9	−0.098	116.2	8.2	0.076	1.135	−0.322	0.250
1975	302.7	67.6	0.276	237.8	45.4	0.236	104.7	−4.9	−0.045	121.6	4.4	0.038	0.855	−0.163	0.138
1976	388.5	85.8	0.283	293.9	56.1	0.236	108.7	4.0	0.038	121.6	0	0	0.834	0.134	0

등장하고 음있을 증명하고 있다.

表 3에서 總賃金額의 雇傭彈力性 ηn의 값을 보면 1966年에 가장 많은 雇傭의 증가를 보였고 다음이 1972年 1973年 순이었다. 또한 各年의 ηn의 값에서 1966年 1972年 1973年은 總賃金增加率보다 雇傭이 더 많은 增加를 보였고 1967年, 1969年 1970年 1971年 1974年 1975年 1976年은 雇傭增加率보다 總賃金增動率이 더 많이 增加하였다. 1968年은 總賃金은 減少했는데 傭賃이 增加하였고 1975年은 總賃金은 增加했는데 雇傭이 減少된 해였다. 곧 官行 林業投資賃金에 의한 所得과 雇傭效果를 가져온 것은 雇傭增加率보다 總賃金增加率이 더 큰 1967, 1969, 1970, 1971, 1974, 1976年으로 12個年중 6個年間이었다.

私有林經營體는 1971, 1972, 1974, 1975年은 雇傭增加率보다 總賃金增加率이 큰 해였고 1973, 1976年은 總賃金은 增加했는데 雇傭이 증가치않은 결과를 보여 6個年間 4個年이 所得 雇傭效果를 보여 官行投資보다 私有林經營體의 林業投資가 더 큰 效果를 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官行投資에 있어서 1966, 1972, 1973年은 總賃金增加率보다 雇傭增加率이 더 큰 해로서 大單位造林事業으로 인한 많은 人力動員을 한 해 였다. 그리고 官行投資의 ηn의 變動幅이 私有林體의 ηn의 變動幅보다 현저히 심한것은 官行投資는 造林面積과 施業에 따라 雇傭量이 變化하지만 私有林經營體는 비교적 安定된水準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造林이 完了되고 森林撫育등의 經營時期에 들어서면 山村地方의 雇傭構造는 훨씬 安定될 것으로 推定된다. 더욱 山林生產力의 增大는 山村地方 所得向上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動態下에서 所得과 雇傭에 미치는 영향

總貨幣賃金額의 增加는 전체적으로 物價의 上昇 實質所得의 增加, 雇傭量의 增大 또는 이들 要因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消滅된다. 例를 들면 物價 p가 정지되어 있다면 즉 $\eta w'+\eta n=1$이 된다면 總貨幣賃金의 增加는 實質所得의 增加 또는 雇傭量의 增加로 나타난다. 그러나 만일 雇傭이 一定하다면 式은 $\eta p+\eta w'=1$의 관계가 되어 貨幣賃金의 增加는 物價의 上昇 또는 그의 相互作用으로 消滅된다. 바꾸어서 實質所得이 一定하다면 $\eta p+\eta n=1$이 되어 物價의 上昇 또는 雇傭增大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같은 關係를 表 3과 4에 적용하여 그 結果를 要約한 것이 表 5와 6이다. 전반적으로 林業投資에 의한 山村 林業賃勞動者의 實質賃金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賃金上昇과 雇傭增大가 物價上昇을 뒤따르지 못하고 實質所得의 계속적인 下落을 가져와 官行投資에서는 勞動限界生產力에도 미치지 못하는 强制動員이었다. 물론 賃金이란 一般物價에 비하여 비교적 安定性 내지 惰性을 갖는것으로 賃金水準이 貨幣賃金을 기준으로 일단 성립되면 一定期間 존속하는 惰性이 있다. 이에 반하여 物價 특히 勞動者가 주로 購入하는 賃金財의 價格이 騰貴하는데 대해서는 貨幣賃金처럼 예민한 反應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景氣變動 過程에서 貨幣賃金은 沈滯期에도 좀처럼 下落하지 않으면 上昇期에도 좀처럼 騰貴하지 않는다. 그러나 實質賃金은 沈滯期엔 物價의 下落으로 上昇하고 上昇期엔 物價의 騰貴로 下落을 면치 못한다. 이처

表 5 動態下의 官行林業投資賃金의 所得雇傭効果

年 度	實質賃金(生活水準)	勞動者 1 當 收 益	所得効果	雇傭効果	年 度	實質賃金(生活水準)	勞動者 1人 當 收 益	所得効果	雇傭効果
1966	下 落	遞 減	—	—	1972	下 落	遞 減	—	—
1967	下 落	遞 增	+	—	1973	下 落	遞 減	—	—
1968	下 落	遞 減	—	—	1974	下 落	遞 減	+	—
1969	下 落	遞 減	—	—	1975	下 落	遞 減	—	—
1970	下 落	遞 減	—	—	1976	下 落	遞 增	+	—
1971	上 昇	遞 增	+	+					

表 6 動態下私有林經營體 林業投資賃金의 所得雇傭効果

年 度	實質賃金(生活水準)	勞動者 1 人當收益	所得効果	雇傭効果	年 生	實質賃金(生活水準)	勞動者 1 人當收益	所得効果	雇傭効果
1971	下 落	遞 增	+	—	1974	下 落	遞 減	—	—
1972	下 落	遞 減	—	—	1975	下 落	遞 減	—	—
1973	上 昇	遞 增	+	+	1976	下 落	遞 增	+	—

럼 實質賃金은 景氣變動에 따라 騰落하지만 勞動者의 實質所得이 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林業勞動期間이 勞動代替가 일어나는 農繁期가 아닌 農閑期이기 때문에 쉽게 調達되며, 賃勞動을 專業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副次的으로 生活補充을 위해서 中農下層 또는 貧農들이 雇傭되므로 最低生存費에 귀착하는 賃金構造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農山村의 勞動構造가 季節性 失業狀態이고 낮은 收入과 追加就業을 必要로 하는 상태에서 就業機會를 만들어 주는 林業投資는 山村農家에 收益遞增을 보이는 상당한 所得効果를 가져왔다. 官行 林業投資에서는 1967年, 1971年, 1974年, 1976年에 收益遞增을, 私有林經營體에서는 1971年, 1973年, 1976年에 收益遞增을 가져오는 所得効果를 올리고 있다. 이것은 林業이 農業과 冬期交替業으로 結合되어 山村의 季節的失業을 吸收하는 勞動代替로 所得効果를 올리는데 공헌하고 있는셈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 山村이 당면한 중요한 課題가운데 하나는 勞動問題로 勞動力을 充分히 活用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農業生産性을 低位에 머무르게 하고 農家所得을 낮은 水準에 머무르게 하였다. 여기에 商品經濟의 山村浸透는 더 무거운 經濟的 重壓이 되었다. 더욱 家族勞動을 중심으로 하고 生産手段에 있어서 人力에 의존하는 零細한 生産構造가 支配的인 현상으로 農山村에 殘存한다면 山村의 社會發展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林業投資의 所得効果는 山村發展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며 계속되는 經濟不安狀態에서 회복된다면 實質賃金의 上昇으로 더높은 所得効果를 가져올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山村地方의 林業投資에 의한 所得効果에도불구하고 雇傭効果가 微微한 것은 林業勞動者의 대부분이 投資事業地域의 一時的 賃勞動形態이고 農閑期를이용한 副收入 獲得에 目的이 있는 勞動形態이기 때문이다. 이는 林業投資의 대부분이 造林으로 專業人口를 必要치 않는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간 私有林經營體에서 버섯이나 種實採取 等 集約的인 林業經營體로 발전하여 착실한 成長을 하는 가운데 微微한 增加이나마 專業人口를 필요로 하는것은 雇傭効果뿐 아니라 所得向上을 해서도 多幸한 일이다.

V. 結 論

그간 山村地域에 投資되어 온 林業投資는 經濟社會的으로 뒤떨어진 農山村에 雇傭機會를 擴大해 주고 그에 따른 所得向上으로 山村生活에 미치는 영향은 多大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政府의 강력한 綠化事業으로그동안 雇傭量은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그 事業推進方式이 적절한 勞動에 대한 補償을 하지 못하고 政府告

示의 낮은 賃金으로 所定期日안에 정해진 事業量을 마쳐야하는 官行投資 事業이었기 때문에 그의 成果는 制約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대부분이 都市資本家이긴 하지만 造林 撫育管理 등 착실히 成長해 온 私有林經營體들이 農山村의값싼 季節的 失業人口를 吸收하여 버섯, 種實採取 등으로 成長을 계속해 가면서 미미한 증가이나마 상당량의 專業人口를 가지게 되었다. 거기에 林業技術의 要求度가 높아지고 作業强度의 重激性 等 林業勞動의 特質로 인하여 勞動價格의 상대적 上昇과 優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官行投資보다 더 높은 實質賃金의 上昇을 通하여 보다 큰 所得効果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傭賃効果가 미미한 것은 그간 林業投資의 大部分이 造林投資로 事業地域의 一時的 雇傭增加였으며 林業賃金의 微微한 增加幅으로 인한 林業勞動 기피에 기인한 것이다.

官行投資거나 民間人의 林業投資간에 상대적으로 零細한 生産構造와 經濟的 社會的으로 落後된 農山村에 미치는 林業投資의 効果는 상당한 것이다. 더욱 平地農村이나 都市에 비하여 여러面에서 落後된 農山村에게는 계속적인 林業投資야말로 그들에게 유일한 所得投資源이다. 따라서 造林 일변도의 투자에서 벗어나撫育管理 등 集約的인 林業經營形態로 育成 發展시키는 것이 山村所得 向上을 爲해 필요하다. 그러므로 營利經濟的 林業經營體의 出現을 적극 支援하는 의미에서 私有林經營體의 集中的인 育成은 대단히 重要하다고 본다.

만약 이와같은 投資活動이 활발해진다면 雇傭機會는 확대되어 資本에 대한 勞動者의 地位를 강화하기 위한 組織化의 움직임도 싹틀 可能性도있으며 더 높은 林業技術者의 要求로 賃金은 急上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低所得과 就業機會의 不足으로 인한 農山村의 人口流出을 制動시키는 要因이 될 것이며 더 높은 所得과 雇傭効果로 山村經濟를 보다 밝게하는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비록 計量的인 所得効果가 아닐지라도 森林이 가지는 水害防止効果, 土砂流失防止効果, 水源涵養効果, 休養効果 等의 公益的機能이 가지는 効果는 多大한 것이다. 이외에도 地元民의 山林副産物 採取에 의한 經濟的 山林利用은 말할것도 없으며 木材의 保續生産으로 인한 社會間接資本의 침투로 山村開發은 進一步 앞당겨지리라고 期待한다.

註 1. 李廣遠 : 造林投資가 山村經濟에 미치는 影響. 農村經濟 1卷 2號, 161~171 1978.
2 李廣遠 : 林業投資가 農山村에 미치는 効果. 全北大農大論文集 第8輯, 121~131 1976
3 金樟洙 : 林業經營學, 서울考試學會 p. 21 1962
4. 官行林業投資와 私有林經營體 林業投資와의 차이는 官行投資는 그의 賃金이 告示에 의한 것으로 市價의 60%에 不過하며 私有林投資는 市價에 의한 現實價額이다.
5. Keynes, J.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6. Hicks, J.R.;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rade Cycles. 1950